

TIMOR LESTE

딜리타임의 11월 이야기



베르타(슬이), 밉가스(유림), 시코(성한), 까를로스(정진)

novembr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Domingu(日)
27	28	29 캠페인 평가모임	30	31 '피스커피'커피 운반	11/1 조디 간사님과 함께 가톨릭 명절성묘	2 전 오라시오 총장님택에서식사 (티모르 명절)
3 피스커피 방문	4	5	6 Y사무총장님과 면담	7 피스커피 평가 워크숍	8	9 YMCA 아시아-태평양 야마다 사무총장님과 식 사
10 오라시오 총장님 송별회	11	12 산타크루즈 기도 및 순 례	13 홈스테이 시작	14	15	16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한국음식 대접
17 End Poverty 추가홍보	18	19 중간평가	20 홈스테이 끝	21	22	23 구제시장
24	25	26	27	28 티모르 독립기념일 12월 역할분담	29	30



人



色

망(막)내니



남엄마



4

당근맨

4

전도사 님



베르타(슬이)

-권력에 집착하는 11월의 ★리더★

-자주 듣는말: 맞을래?(주로 까를로스한테서 들음), 뽕큐, 만두 괴롭히지마, 야 구슬이(주로 간사님들한테서 들음)

Deit berta mesak la haris, sempre haan(베르타는 안씻고, 항상 먹기만함) / Ullun iha maibee hanoin la iha(뇌는 있는데 생각은 없다)

-자주 하는 말: 뭘 봐, 웃지마, 싫어

-쇼핑중독(구제시장 킬러): 베르타와 함께라면 3달러짜리도 50센트가 되는 마법이!!!

-면역력 제로

까를로스(정진)

-자주하는말: (이 맛있는건 누가 만들었찌?! 이 맛있는 사진은 누가 찍었찌?)나지요~호호(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게 포인트), 쉬이!(돼지 괴롭힐때, 닭 쫓을때 내는 소리), 이노옴~(만두 괴롭힐 때 내는 소리), 이히~(누구 괴롭히고 만족스러울때 내는 소리), 베르타 씻었어?, 그랄쑈 있찌ㅇㅇ, 유림아 이거 맛있다, 요리요런건 전세계가 다 똑같애

-운동 후 차가운 물을 찾아 냉장고 있는 집을 가정방문함(주로 아페로, 싸싸이네 집)

-주희曰 “여자처럼 얼굴이 작은 중국오빠”

-최근 헤어스타일에 대한 품평:파인애플 머리, 당근뿌리 머리, 반렐루(게이) 머리

-Badinas-teen : 부지런쟁이(아침, 점심 40분 거리의 센터까지 걸어다니고, 아침이랑 오후에 있는 축구 트레이닝을 두번 함)





밍가스(유림)

-별명: 남과장(이대 앞에만 떡볶이 집이 100개가 넘는다는 등 과장이 심함), 인도밀 킬러(1일 2 인도밀), 깡패, 남엄마(구원파 느낌으로), 인격부자(다중이)



-주희曰 “저기 얼굴 큰 언니”

-자주 듣는 말: 이거 무슨 깡패네(정진)

-자주 하는 말: 슬아 언니 좀 일으켜줘, 난 안취해 시코 가서 인도밀 사와, 야 안!정진(까를로스는 성 붙여서 부르는 걸 싫어함), 뭐, 그러면 안됨~?, 만두짱우쭈쭈쭈, 간사니임~(간사님에게는 친절한 목소리) 발리가면 뭐하지?(눈이 초롱초롱해짐) 발리갔다오면 뭐하지?(슬퍼짐)

시코(성한)

-자주 듣는 말: 그게 키스야?(중간평가 때 납득이 같은 얼굴과 제스처로 사진이 찍힌 이후, 시코만 보면 팀원들이 저렇게 묻는다고 한다), 노크하고 다시 들어와(자주 여자방에 노크를 안하고 들어옴)

-자주 하는 말: 무서운 사람이네~, IDA NEE DEZAFIU(“이것은 도전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시코는 이런 말투를 자주 쓰는것은 아닐는지.

-별명: 테라산타 패션왕(압도함), 댄싱킹, 김치헌터(젓가락질 한번에 김치 10조각), 1일 1 울음, 대(박)변(태)인(혼자서 썰썰썰 웃고, 여자방에 노크를 안하고 들어옴)

-좋아하는 것: 혼자 나가서 걸어다니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에게 말 걸기, 혼자 웃기



딜리팀의 동거인들

Y 공정무역 커피사업으로 티모르에 계시는 네 분의 한국 간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띠들.
11월 보고서에서는 아띠들의 동거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Andre (승창)간사님

- 보조개가 트레이드 마크
- 인도밀 요정(가끔 냉장고에 인도밀이라는 초코우유를 가득 채워놓으심)
- 목소리 미남 (+그냥도 미남)
- 자주 하시는 말 : 맛있다~, 멋있다~, 이다네 마까...(뜻:이것은...)



Luna(동화)간사님

- 티.박(티모르 박사의 줄임말; 티모르에 8년째 거주 중이심)
- 만두 수면제
- 좋아하시는 것 : 깨물기, 만두, 승창 간사님
- 자주 하시는 말 : 잘한다~, 가위바위보 하자 승창아~~, 기연아~~ 이거 완전 변태네, 웃긴다~



Clara(기연)간사님

- 눈썹이 트레이드마크
- 만두성애자
- 아기호랑이
- 아토피 전문가
- 자주 하시는 말 : 야옹~, 야 구슬이, 웃지마 너도 똑같아, 아그래?, (만두에게)공주님~



창효 간사님

- 티모르 새내기 (11월에 오심)
- 아이무틴 최고연장자
- 하얀 피부의 소유자



만두님

- 좋아하는 것 : 모기장, 깨물기, 할퀴기, 새벽에 나와서 안아주기, 여자방, 머리카락
- 애칭 : 공주님, 마마, 만두국, 만두시키, 애기 등 다양함

오라시오 총장님 댁에서 식사



동티모르 YMCA 오라시오 총장님께서
직을 내려놓으셨다. 센터에서 볼 수 없
는 슬픔을 뒤로 한 채, 늘 그렇듯 라온아
띠를 챙기시며 총장님 댁에 초대해주셨다.



홈스테이 가기 전이었기에 현지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설렘과 어떤 요리를
맛볼 수 있을는지 궁금함을 한 가득 안
고 방문한 총장님댁!



아띠들 배가 터질까 겁이 날만큼(?) 계
속해서 더 먹으라며 아띠들을 챙겨주신
총장님과 사모님.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
난 듯 포만감만큼이나 큰 힘을 받고 돌
아왔다.



한국 소주를 무척 좋아하시는 오라시오
총장님. 총장님과 다시 한번 술 한잔 기
울일 날이 얼른 오길 ☺

총장님! 다음 방문에는 미역국 말고 더
맛있는 한국음식 만들어갈게요!



피스커피 평가 워크숍



동티모르는 한국YMCA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의 원두산지이다. 라온아피는 피스커피 원두생산지(사메 지역) 방문, 그린빈 가공장 방문, 기타 노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피스커피가 운영 중인 동티모르 최초의 공정무역카페 “피스커피”는 아피의 아지트이자 사교 활동의 장이기도 하다.

보통의 공정무역사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발전과 공정무역 “인증제도”에 집중하곤 하지만 YMCA의 피스커피는 마을의 변화와 공동체, 소그룹 구성원들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월엔 이 피스커피의 중간평가 워크숍에 아피들도 참관하였다.

이 날 평가 워크숍은 한국Y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님, KOICA 동티모르 사무소장님,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대사님도 참여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커피 생산지인 사메 지역의 생산자 아저씨들이 수도 딜리로 함께 올라오셔서 참가하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피스 커피의 지속 가능성은 사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피스커피가 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중심은 생산자일 것이고 그들이 직접 참가하고 평가하고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 워크숍은 너무나 뜻깊은 자리였다.



오라시오 총장님 송별회

‘총장님 총장님 우리 총장님’

‘푸우’를 닮은 푸근한 인상과 환한 미소. YMCA 일이라면 주말도 마다 않던 오라시오 총장님께서 동티모르 YMCA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으셨다. 티모르 땅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또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지금껏 함께했던 총장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없음이 슬펐다. 고로 아띠들은 간사님들과 송별회를 준비하며 이전 기수 및 우리들의 편지와 사진을 모아 앨범으로 제작, 감사함을 담아 선물해드렸다.

더욱이 이 날은, 아시아.태평양 YMCA 야마다 총장님 일행과 오라시오 총장님 가족도 참석해 총장님의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을 한껏 담은 송별회가 되었는데...

총장님, 그동안 감사드렸고 앞으로의 날들도 멀리서나마 늘 응원할게요! ☺
“Obrigado Barak, Xefi!”



산타크루즈 순례



1991년 11월 12일
산타크루즈 묘지 앞.

인도네시아 식민 강압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시위 중이던 동티모르의 군중들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약 200여명이 학살 당했다.



영국의 한 기자에 의해 보도된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무력 합병을 암묵적으로 묵
인하고 있던 전 세계에 다시금 인도적 관심을 불러왔
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규탄이 계속되었고 국
제사회의 압박과 인도네시아 정권교체로
동티모르는 독립과 합병 중
(UN주선)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택했다.



우리는 제로니모 간사님, 스카우트청년들과 함께
산타크루즈 대학살 때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성당부터 바다까지 묵주기도를 외며 걷고 또 걸
었다. 도보순례를 하는 동안, 함께 하지 못한 주
민들이 같이 촛불을 켜주고 기도를 보태주었다.
바다에 도착한 우리는 준비한 꽃과 촛불을 바다
에 띄우고 함께 기도를 했다.

오랜 식민기간동안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한 도보순례. 정말 뜨거웠던 이날
의 날씨만큼 그 때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의 마
음을 늘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평가



팀원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간평가 기간이 왔다. 일주일 동안 티모르에서 아미들의 생활상, 아미클라쎄의 전개 방향, 아미들간의 관계를 지켜보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던 간사님들. 중간평가'라는 말 보다는 중간'격려'라는 말이 좋다고 하시던 일주 간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번 중간평가는 아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4시간이나 진행되었던 중간보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신의 소회를 이야기 하는 시간 동안 털어냈던 팀원도 있었고, 그런 팀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아파하던 팀원도 있었다. 중간격려자가 된 동시에 딜리팀을 흔들어 놓고 간 중간평가. 이번 중간평가는 딜리팀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

Francisco :)

시코가 중간평가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도전' 이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다 혼자 눈물을 훔친 것도 그 때문. '그동안 뭘 하긴 했구나. 한국에서는 시도조차 못했을, 아니 생각조차 않았을 일들을 해냈구나' 더욱이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해낸 거다. 우리가 함께해서 즐거움을 나눴던 경험. 내게는 얼마만의 경험일는지. 참 고마웠다. 팀원들도, 무엇보다 우리와 나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함께해주었던 현지 간사님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 ☺

우리는 중간평가에서 여러 아쉬운 점 중, 지역 청년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방안을 꼽았다. 캠페인 이후 아띠클라쎄를 핑계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건 아닐까. 우리에게 남은 2개월의 숙제이자 꼭 하고픈 도전이 있다면 'End Poverty'와 같은 또 다른 일을 벌여보는 거다. 함께 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함께하기에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보여주고 싶다.

한편, 네 시간의 중간평가를 준비하고, 보고하는 팀원들을 지켜보며 항상 머뭇거리며 걱정한 탓에 적극적이지 못한 '나' 는 아니었는지 반성도 했다. 앞으로는 회의도 나눔도 좀 더 씩씩하게 참여하고 (다소 웃긴 이야기지만...)착하게만 살지 말아야지.

남은 2개월, 뽀~~~이야!

Minggas :)

60여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참여하고 진행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계기,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활동에 대해 한번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또 우리끼리는 나오지 않았던 팀원들의 솔직한 소회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활동에 대해 미처 생각치 못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얻었고 현지 간사님들께 직접 아띠 클라쎄의 방향성이나 이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어 참 좋은 자리였다.

우리를 잘 알고 응원해주시는 한국 간사님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긴장보다는 두근대고 설레면서 중간평가를 기다린 것 같다. 실제로 일주간사님은 버거킹을 두달째 먹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보고 꼭 버거킹을 사주고 싶으시다며 몰래 우리를 버거킹으로 빼내 기도 하셨다.

중간평가는, 이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봐야하구나,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티모르에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를 한번 더 환기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남은 두 달여 시간. 나에게, 라온아띠 딜리팀에게, 테라산타 마을과 YMCA센터에게,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할까 고민이다.

Carlos :)

멀게만 느껴졌던 중간평가가 닥치고 나니 낯설기도 하고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히 무언가 좀 쳐져있던 느낌속에서 한국에서 오신 동민간사님과 우리 일주간사님을 보니 에너지가 솟는 느낌이었다. 일주 간사님께서는 계속 중간평가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며 중간 격려자, 깜짝 방문자 등등 새로운 이름을 가장한 중간평가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따뜻한 느낌과 애정어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격려도 많이 받았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 아무쪼록 남은 기간을 더욱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되었다. 평가가 아닌 그저 같이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와 친한 간사님들과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들의 소중함을 한번더 알게해 준 우리들의 격려자, 간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지금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기분이다. 아띠 모두들 이시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불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Berta :)

중간평가 즈음의 나에게. 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언제쯤에나 받아보게 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중간평가 기간이 왔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구나... 이제 2개월 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연했던 이곳에서의 시간을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뒤로하고,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일주 간사님과 동민 간사님을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갑고 좋았다.

간사님이 오시면 저녁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홈스테이 기간과 겹쳐서 그럴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다는 게 참 아쉽다. 하지만 수업 전담이 아닐 때마다 툼툼이 간사님과 데이트도 나가고, 내 면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쉬면서 간사님 이름으로 걸어놓고 아이스티를 5잔이 넘게 마신 것도 그냥 즐거웠다. 간사님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 편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간평가 그 자체는 나에게 많은 자극과 혼돈을 주고 갔다. 중간보고회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모른 척 했던 우리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간사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넷의 관계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에 대해 포기하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해본 것 같다.

그냥 우리의 관계를 내버려 뒀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며 간사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현실을 직면하게 해 준 간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현실을 직면하니 좀 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서로가 해야 할 일, 서로에게 해 줄 말을 제대로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진다.

테라산타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넷이서 함께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듯 하다. 간사님이 말씀하셨듯, 남은 2개월은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nd poverty 추가 홍보



10월 29일 청년들과 캠페인 최종 마무리를 하는 자리에서, 캠페인 홍보를 센터가 있는 테라산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그제서야 아차!싶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있는 테라산타에 먼저 홍보 하려는 생각이 하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 했을까...

캠페인을 마무리 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아띠들과 청년들은 테라산타 주민을 대상으로 한 End poverty 추가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때는 11월 17일로 정해졌다.

11월 17일에 아띠들은 테라산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End poverty에 대해 설명하고, 화분 홍보도 하였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고, 이 날 우리는 큰 화분을 2개를 팔았다. 후에 여러 개의 화분이 더 팔려서, 아띠 들은 테라산타 주민들의 관심에 큰 고마움을 느꼈다.

Ps. 추가 홍보를 위해 마을을 도는 동안 우리가 만든 화분과 똑같은 모양의 화분이 여러 개 있어서 처음엔 당황했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 뿌듯해하기도 했다. 마을 한 가운데 탁 트인 센터 앞에서 화분을 만들었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같은 모양의 화분을 만든 것이었다 ☺

캠페인 뒷 이야기

캠페인 시작부터 정해진 우리의 리더 '햇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캠페인 이지만 고마운 Y 멤버이자 우리들의 친구. 하지만 캠페인 후반부 부터는 참여를 거의 하지않았던 햇산이어서 섭섭함도 있었다.

그런데 왜걸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햇산의 사진을 보게되었는데,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던 화분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것이 아닌가?!

처음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당장 우리 캠페인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도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화분을 만들어 판다는 것이 굉장히 섭섭하고 화도 난다고 우리끼리의 나눔을 했다. 하지만 양동화 간사님께서 들려주신 캠페인의 소감은 우리의 섭섭함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느낄 필요 없이 햇산이야 말로 캠페인을 체득해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캠페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햇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캠페인으로서 얻게된, '우리가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또하나의 경험이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고맙습니다 햇산.

PS 요즘은 큰화분까지 만들어서 한개당 50달러에 팔고있다는데...

달러의 END POVERTY 가 배출한 젊은 창업가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하면서 요즘 부쩍 돈을 벌어서 그런지 세련되게 다니는 햇산을 보며 우리도 모를 미소가 번진다.

MEDIA KLASSE



"Ida nee DEZAFIU" I

이것은 도전이다, 미디어클라쎄

“간사님, 애들이 안와요!”

하나 둘씩 줄어들더니 안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가적인 시험 탓이라지만 시코는 미디어 클라쎄에 재미와 애착이 커지는 와중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당황스러울 밖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안오는 시간을 즐겨보려 했고, 때로 한 명을 데리고 클라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방판하러 가니?”

아, 그래도 이렇게 계속하다간 안되겠다 싶어 중간에는 청년들과 테라산타 마을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청년들을 물색했다. 주섬 주섬 녹음기와 스피커를 챙겨 마을로 향하는 시코에게, 아띠들은 ‘방판하러 가니?’ 라 묻곤 했다. 화장품 방문판매처럼 동네를 쏘다닌 덕에 딜리에 있는 공동 체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다는 청년을 만나기도 했다. 그치만 시코의 방판 첫 목표는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들려주고 나누는 것이었는데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많아 자리에 앉아 수다만 떨다 돌아오기 일쑤였다.

길가에서 클라쎄를 진행하다.

하루는 길가에서 미디어클라쎄를 진행했다. (물론 길가에서 클라쎄를 진행했다기 보다, 녹음기와 스피커 들고서 같이 논 것 뿐이었다.) 친구를 인터뷰 하겠다며 깔깔깔 웃으며 마이크를 들이대는 윤석들 그리고 스피커로 인터뷰를 틀어놓으니 하나 둘씩 모여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이들. 꼭 칠판과 분필, 책걸상이 있는 곳에서만 미디어클라쎄가 진행될 수 있으랴. 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거였다!

클라쎄를 진행하며 가~장 뿌듯했던 나날 중 하루가 바로 이 날이었다. ☺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시험기간이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째째

하지만 시험이 거의 끝날 무렵, 우디스 간사님께서 아이들을 모아주셨고 미디어클라세의 숨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10월 말부터 정체되어있던 인터뷰 수업을 마무리 짓고, 편집작업을 통해 mp3 파일로 만들어냈다.

간사님께서 아이들 스스로 활동을 재확인하고, 미디어클라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알릴 겸 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센터에 홍보하길 권하셨다. 나 역시 클라세가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가수를 자청하는 삼촌에게서 티모르 음악만 2gb를 받아오는 한편, 애초에 계획했던 facebook 페이지를 개설해 아이들의 활동을 게시하기로 했다.

인터뷰 이후, 우리는 신문과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계획은 먼저 신문을 읽고,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 각자 작성한 기사를 하나의 커다란 종이에 붙여 신문을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작성한 기사를 녹음해 하나의 뉴스를 만들어보는 거다.

고로 11월 말까지는 신문(Timor Post)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기사를 찾아 소개하고 싶은 이유 및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고 발표했다. 신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거니와 나 역시 아이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지 못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서로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이쁘다. 미디어 클라세는 이쁘고 멋진 애들이 온다... ㅋ


아이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
‘La bele Moe!’ ‘Ida nee la susar!’
부끄러워하지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내게 점검하는 것.
정말 어렵지 않니?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칭찬은 많이 해주고 있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Fun Fun 하게!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껏 즐거운 미디어클라세가 되길. ☺

동티모르YMCA 페이스북 : [Facebook.com/ymca.tl](https://www.facebook.com/ymca.tl)





Home Stay

아띠들에게 가족이 생겼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홈스테이! 어느 집이 나의 홈스테이 집이 될까?!

두근두근 기대한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아이들은 너도나도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하라고 즐랐고

다들 누가 아띠의 가족이 될지 관심집중이었다.

현지사정상 우리는 홈스테이를 딱 1주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한 번 가족이 된 식구들은 늘

숙소로 돌아가지 말고 집에 와서 점심먹고 자다 가라거나

주말에 와서 자고 가라고 말하곤 한다.

아이무뎌 숙소를 떠나 진짜 티모르, 테라산타에서 보낸 1주일의 시간,

아띠들에게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Berta

17명의 대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아침마다 우렁차게 울어대는 KOREA(아기 이름이 KOREA다.) 덕분에 다른 아띠들보다 일찍 기상해서 동네를 돌아보곤 했다. 내가 자기네 집에서 홈스테이 한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HAU NIAN BIN(내 누나) 하면서 살뜰하게 챙기던 아베와 함께 바다로 아침 수영을 간 것, 엄마랑 아빠를 닮아 아주 예쁜 파이아와 라우가 패션쇼 하는 것을 구경하던 것, 왕 훈수 동생 메리와 랄루가 이모 몰래 담배사러 가는 것을 따라가서 구경한 것, 모범생 케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한국어 공부를 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다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좁은 거실에 10명이 넘는 가족이 앉아 티모르에서 대유행하는 하리마운(우리나라 백터맨 같은 드라마)을 보고 있다면, 이곳이 티모르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여기가 우리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야외의 테이블에 앉아 도란 도란 얘기할 때, 가족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루이스네 집이 좁아 친척집인 옆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두집살이를 하는 느낌이 있었다.(그래서 나만 엄마가 두 명이었다.ㅋㅋ) 이 집에서 밥을 먹고는, 안 먹은 척 저 집에서도 밥을 한 번 더 먹기도 하고,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저 집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한 쪽 집에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을 경계하느라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홈스테이였다.





Mingas

나는 평소에 자주 놀러가는 제씨네의 bin boot(큰언니)이 되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하러 지방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와 동생 떼띠, 제씨, 가족이 총 3명 뿐인 보기 드문 소가족이다. 그치만 한집같이 붙어있는 옆집사촌들, 오며가며 놀러오는 이웃들 덕분에 집 앞 마당은 늘 도란도란하다.

홈스테이동안 가장 친해진 가족은 엄마이다. 우리집 엄마는 내가 집에 있을 1주일 동안의 식단을 벌써 정해 놓고 내일은 이것, 모레는 저것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저번 점심식사 초대때 맛있게 먹었던 푸딩을 꼭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반찬은 늘 2가지 이상씩 해주셨다. 우리 집이 아띠 넷 중에 제일 소박한듯 했지만 반찬은 내가 제일 잘 먹은것 같다. 잠은 제대로 잤는지 욕실이 어둡지는 않은지 밤늦게 씻으면 나중에 아프니 씻지말고 그냥 자라고(^^;) 늘 건강도 챙겨주셨다. 집이 누추하다고 티모르는 가난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땐 맘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것또한 그냥 아줌마들이 보통 하는 평범한 말들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나는 정 많고 재밌는 엄마를 만나게 되어 너무 좋았다. 우리 엄마는 동네 가십의 중심인 것 같다. 테라산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가십, 소문들은 꼭 엄마를 거쳐간다. 덕분에 난 현지간사님들보다도 더 빨리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도 했다. 엄마와 같이 장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마실다니고 수다떠는 일상들이 참 좋았고 엄마가 또 우리 엄마랑 참 닮은 것 같아 그것도 좋았다.

엄마랑 같이 다른 마을도 놀러가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다보니 확실히 티모르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티모르에서는 축제를 빗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치르는 탓에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기도 한다던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소를 몇마리 염소를 몇마리 가져가야하는지, 결혼을 위해 티모르는 어떤 관습을 갖고 있는지 엄마는 내가 궁금해할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티모르는 지역별로 언어가 상이해서 서로 말이 아예 안 통하기도 한다. 우리 엄마는 에르메라지역 분이신데 엄마가 가르쳐주신 기본 에르메라어는 사전과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에 정말 소중한 공부였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 물어보고 에르메라어가 통할 경우 어쭙쭙은 에르메라어로 대화를 시도해 재미 좀 톡톡히 보았다^^

평소 우리는 티모르의 치안 때문에 미끄롤렛이 끊길 때쯤인 6시 전까지 귀가하고 그 후론 외출을 못한다. 밤의 티모르는 도통 구경할 수가 없다. 하지만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늦은 오후의 바다도 즐기고 저녁 무렵 불이 켜진 시장도 구경하고 해가 저서 선선한 마을 어귀도 돌아다닐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팀원들과 골목에서 만나 탄산 한잔 하면서 수다떠는 재미도 있고 말이다.

홈스테이가 끝나기도 전부터 엄마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삼촌트럭으로 공항까지 날 데려다주겠다고 당부하셨다. 그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공항엔 못 가겠다고 하며 웃으시기도 했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 진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데도 뭔가 울컥해서 엄마도 나도 사촌들도 눈물이 났다. 헤어짐의 아쉬움이라기보단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눈물이 난 것 같다.

내가 Mana(사실 엄마가 아닌 mana로 부르게 하셨다TT)와 가족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기쁘고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티모르에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안고 갈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사진. 내 동생 떼띠의 졸업식

Carlos nia UMA



그리 큰 집은 아니지만 식구가 15명 이나 되고, 집에는 항상 나를 반겨주는 동생들이 8명이나 있다, 센터옆 큰 시장에서 가장큰 옷가게를 하는 엄마가 있고, 테라산타 자동차를 도맡아 수리해주는 아빠가 계신다. 처음에 너무 반겨주고 잘 알려주셔서 왜 이렇게 환대해주실까, 왜 이렇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우리는 조건부에 익숙해진게 아닐까. 조건없는 무언가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내가 또 한번 깨지게 되었다. 조건없는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생각도 해보았다. 옛날 같았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조건없는 뭔가를 왜하냐 하며 머리를 빠져나갔을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일찌감치 어릴 때 부터 알았던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어릴적 이후에 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무뚝뚝한 내 남동생 에판, 아따이 에게서도 애정을 느꼈고, 사랑스런 여동생 아피나, 마리아, 비달리, 밀레나, 노피, 난다 에게서도 느꼈다. 내가 돌아가던날 눈물을 흘리던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한번 더 깨졌다, 더 깨져도 좋을 것 같다.

Bem vindo!

Iha nee Francisco nia Uma

: 어서오세요. 여기는 프란시스코네 집입니다.



Francisco's Homestay

| 시코의 홈스테이 이야기



작은 아버지와 사촌동생 아바운, 아팔라

저녁 무렵, Apa-kïik(작은 아버지)께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따라 나섰다.

아버지의 친구는 누구인지, 밥이 입맛에 맞는 지
별 이야기도 안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늘 혼자였던 어린 시절,

내가 바랐던 우리 가족의 모습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La bele Hanoin Barak. Toba!

▼ 시코네 가족 사진

돌이켜보니 우리 집은 정말 유쾌했다.
 실제로 외삼촌이 코미디언이었고,
 ‘밥 말리’를 존경하는 삼촌은
 가수를 자칭하며 뮤직비디오도 찍었다.
 우리 아버지는 코코넛 나무에 오르지 못하면,
 티모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다며
 반드시 내게 나무 타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셨고
 동생들은 내 몸에서 Morin(향기)를 찾았다.
 (지금도... 왜 그럴까?)

홈스테이 첫 날에는 엄마와 아빠를 Mana(누님)과
 Maun(형님)으로 부르는 실수를 범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찾으니 당시 Maun은
 고향인 Suai에 계신 할머니를 전화로 연결해주셨다.
 한번도 뵈 적도, 뵈 수도 없을 엄마를 찾으며 언제
 오냐고 여쭙니 다음주는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튿날, 센터 간사님께 Mana와 Maun이
 바로 내 부모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호칭을 고쳤다.
 엄마를 누나라 부르고, 아빠를 형이라 불렀다니.
 고의는 아니었지만 나도 참...

더운 날씨 탓인지,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취하는 티모르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였다. 하루는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버지 왈, ‘La bele Hanoin Barak, Toba!’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는 이야기였다. 헉,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치만 그게 정답.
 너무 많은 생각으로 외려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 지.

아버지의 말을 다이어리에 적어냈다.
 이따금씩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적,
 ‘La bele Hanoin Barak, Toba!’를 되내이며
 피식 웃고 넘기길. 그리고 눈 감고 잠깐이나마 Toba(자자)!



엄마 왈,
 ‘화내는 걸 좋아하는’
 내 동생 알리아의 셀카 ▼



▲ 밥 말리 삼촌



◀ 코미디언 외삼촌과
 엄마



“수아이에서 가족들이 왔어요!”
(버스 위 나무 상자에 돼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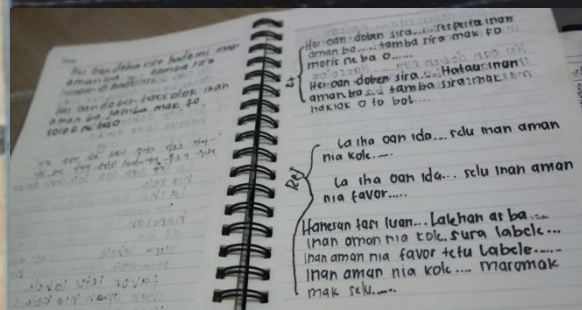
아버지의 고향, Suai (수아이)에서 친척들과 돼지 한 마리 그리고 닭 세 마리가 12시간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했다. 가족끼리 모여 아버지의 졸업식을 축하한다기에 조출할거라 예상했건만 가족이 엄청 많았다. 덕분에 딜리에 살고 있는, 또 수아이에서 온 가족들을 포함해 아버지만 열 명 넘게 생겼다.

그렇게 매일, 우리 가족은 집 앞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일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근황과 고향 수아이, 아버지의 졸업 등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 나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아버지들은 시코가 티모르, 특히 아버지와 가족들의 고향인 수아이 출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길 바랐다.

한번은 남과 북이 나뉘어 여지껏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티모르 역시 동과 서가 나뉘어 다투었던 적(2006년)이 있었다며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일만큼 슬픈 건 없단다. 고로 지금 티모르가 하나이듯 조만간 한국도 하나가 될 것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힘을 돌아주시기도 했다.

때로 밤이고 낮이고 술 한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고, 가수와 코미디언 삼촌들 덕분에 티모르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만날 수 있었다. 나와 동갑인 로둑삼촌은 키보드 연주가 특기라 내게 티모르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제목은 <Hei Oan doben-sira>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노래다. 로둑 삼촌은 한 줄, 한 줄 내 다이어리에 써 내려가며 가르쳐주었고 아버지 졸업기념 Festa에서 삼촌의 반주에, 나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마침 아버지 졸업식 기념 Festa는 홈스테이 마지막 전 날이었다. 아버지의 졸업식을 축하할 겸, 홈스테이 기간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를 불렀다. 음치에다 부족한 떼똥어로 노래하러니 듣는 이들에게 미안했지만 함께 불러주고, 손 잡아준 가족들과 손님들에 감사했다. 노래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안아주셨다.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가는 느낌이지만, 참 좋았다.





나는 아직도 홈스테이 집을 그린다. 'Sico Han lai!(시코 밥먹어)' 하고 소리치고 두 그릇 이상 먹지 않으면 밥 먹은 걸로 취급도 안해주던 시크하지만 정감 있는 올 엄마. 홈스테이 마지막 날, 돈도 없고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로 나를 울린 우리 아버지. 'Han Barak, Mi bot, Te bot (밥을 많이 먹으면 소변과 대변을 잘 본다)' 말해주던 작은 아버지. 일요일은 Free wifi day 라며 '내가 대체 얼마나 부잣집에 온 거지' 놀래켜놓곤 정작 라온아띠 폰으로 테더링을 켜던, 잠은 하루에 두 시간밖에 자지 않는 다며 밤새 자다 오후 1시에 일어나던 봄 말리 삼촌, 그리고 내 동생 아손, 알리아와 사촌동생 이스티, 아달, 비시, 아바운, 아팔라, 아북과 아뚝, 셀시아. 이 만해도 어린이집인데 친구들까지 데려오면 30분만에 넉 다운. 언덕 위 로뚝 삼촌과 보짓 삼촌네 방으로 은신! 코미디 영상을 보거나 연애나 시뎃 짤은 이야기로 낮잠 청하던 순간들이 눈에 선하다.

집에 들어서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라는 것.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벅찬 기억이다. 누워서 TV보며 '시코 왔냐' 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는 엄마와 내게 달려와 안기는 동생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 일주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이 없는 집, 그 집에 홀로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게 참 행복했다. 하지만 안다. 나는 이 집에 살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껏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걸. 한 때는 원망도 했지만 내가 가족의 품에 안겨 울었듯 한국의 부모님도 나보다 더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으리라. 돌아가면 부모님을 꼬옥 안아드리고 싶다. 그것이 티모르의 가족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일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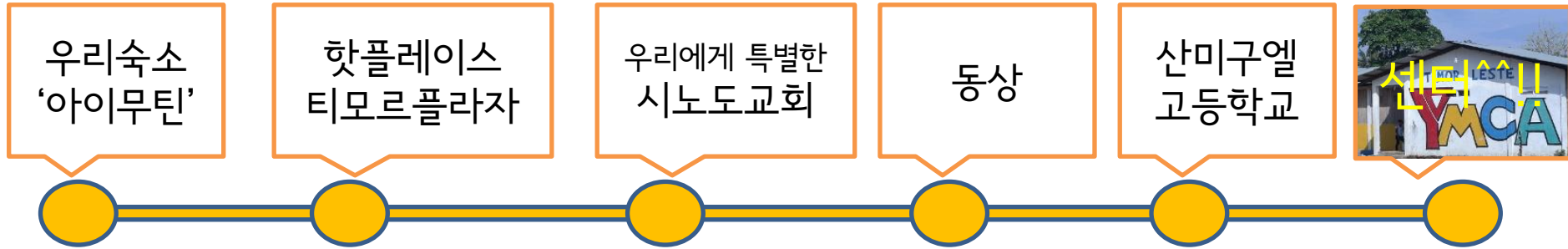
시코 아빠 졸업 Festa



시코 아버지의 졸업식과 그를 기념하는 Festa에 초대받았다. 마침 중간평가보고회 날이었던 터라 평가를 위해 동티모르를 찾은 한국 간사님들과 함께 Festa에 참석했다. 동티모르 사람들의 Festa가 크고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역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집이며 수많은 음식들, 춤과 음악까지 어우러진 그야말로 큰~ 동네 축제였다.

시코네는 컴퓨터가 3대나 있고 에어컨방이 따로 있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걱정 없었지만 티모르에서는 빛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축제를 치르는 탓에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정부에서 큰 축제를 법으로 제재할 정도라니... 축제라고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시코네에서는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을 이름과 함께 리스트로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티모르가 가난한 것은 Festa때문이라는 한 mana의 말을 듣고 처음엔 다들 가우뚱했었지만 1주일을 새벽내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코네 Festa의 규모를 보곤 그럴만도 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카를로스(정진)는 10월 가랑부터 숙소(아이무틴)에서 센터까지(테라산타) 편도 40분 정도의 거리를 오전, 오후 한번씩 걸어다니고 있다. ^^ (덕분에 구릿빛 피부)

처음에는 걸어다니며 떼뚱어와 이것저것 공부할 것들을 보는 김에 걸어다녀 보자 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걸으면 보이는 것들을 보고 또 찾는 데에 재미가 들러 금방 걸어가는 기분이다. 가면서 눈에 띄는 것들은 위와같은 코스인데 소개할 것이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한 기분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티모르의 가장 크고도 핫플레이스인 '티모르플라자' 집을 출발하고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많은 방문을 하게 되는 곳이다.



미그롤렛2 (정말 많음)

티모르의 대중교통 미그롤렛!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앞서본 티모르의 대중교통 미끄롤렛은 우연히 찍은 사진에도 여러대가 나올만큼 정말 많이 다닌다. 일정상 하루에 4번이나 타게 되는 미끄롤렛 안에서 티모르의 일상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다.(막 말걸기, 친한척하기 등등)

SINODO 교회인 이곳은 오라시오 총장님의(지금은 전총장님이 되신) 사모님이 목사님으로 계신 곳이다. 지날 때마다 총장님과의 추억들이 계속 떠오른다.
보고싶은 총장님.



이 성당을 지날때 코모로강을 가로지는 다리를 항상 건넌다. 지금은 말라있지만 서서히 우기가 되면서 강이 되어가는 중이다. 다리를 지나며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이며 맑은 날씨를 볼 때마다 딜리의 변화를 알아가는 것 같다.또 딜리의 날씨에 감탄하고 나의까만 피부에 또 감탄인지 깜짝 놀람인지를 느끼게 된다.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딜리의 길은 앞서 코스설명에서 본 것과 같이 큰 중심길을 따라 직선으로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점의 모습들이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열 준비를 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이나 느낌은 비슷하다.
'역시 사람사는건 다 비슷해' (내가 자주하는말)

매일 걷는 길이지만 인도가 보도블럭 3칸은 너무 좁다. (좀 넓혀졌으면 하는 소망) 현재 내머리는 그림자와 같이 저렇게 묶어서 지내는중(옆머리만 자름) 걸어다닐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Fuk Diak~! (머리 멋져)



간간히 보이는 헤어샵, 이름하여 살롱!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서비스를 받는데, 음 부르주아 계층이 이용을 하는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직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 내머리는 친구들이 항상 자그마한 빗과 종이자르는 가위로 아주 잘 잘라준다. 하지만 지나다닐 때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잘 흔들어주신다.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아직 센터까지는 코스의 절반 정도가 남았기에 센터의 모습은 절반만 공개! ^^
나머지 코스는 소중한기에 12월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전략)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채로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의 재미도 느끼고 있고 티모르의 가까운 모습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것 같다. 빠르게 차타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걷고 보면서, 조금씩의 변하는 딜리의 모습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을 알아가는 스릴이 아닐까. 매일 차타던 길을 한번쯤은 뛰어도 보고 한번쯤은 걸어도 보고 한번쯤은 느리게 걸어도 보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12월에 돌아옵니다.



딜리팀 사진전





제목: 뒷모습



제목: 베르타와 밍가스





제목: 이들 부부가 사는 법







제목: 라떼 소풍
(부제 “저기 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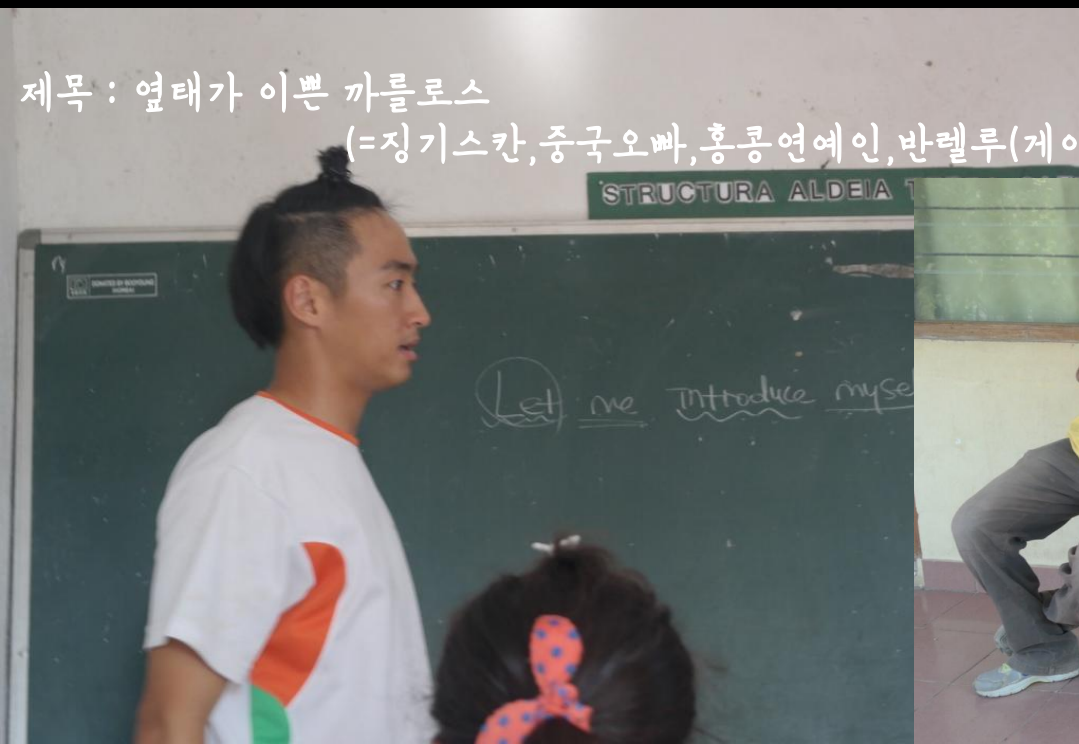




제목 : 혼한 티모르 청년들



제목 : 망내니의 "빠빠빠"



제목 : 옆태가 이쁜 까를로스

(=징기스칸, 중국오빠, 홍콩연예인, 반렐루(게이), 테라산타일진 등등)



제목 : 바포바(자러가라)



리따

떼띠

미노

미녀 삼총사!



‘이렇게 하는거예요’



제목 : “함께”





11월도 HAMUTUK(함께)!!!

개인 에세이



Mingas's essay

에어컨이 생겨서 우리 삶은 더 편리해진걸까, 편리해졌다고 생각하게 된걸까

에어컨이 없는 세상은 불편한 세상일까?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못한 사람은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건가?

아니면 우리가 에어컨이 없으면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건 아닐까

우리는 에어컨이 생겨서 삶이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나은 문명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기술이 생겨난 뒤로부터

우리는 문명이 자연의 섭리라고만 굳게 믿게 됐는지도 모른다

내가 티모르에서 느낀 것은 이런 것들이다.

티모르는 *덜 발전* 되었기 때문에 온통 고쳐야 할 것 투성이일까?

이 사람들은 불편과 가난과 온갖 문제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지금 문제가 없을까? 우리야말로 온갖 문제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문제들은 티모르의 문제들에 비해 배부른 헛소리들일까? 아니다. 무엇하나 시덥잖다고 가벼이 여길 문제들은 없다. 그럼 다시 티모르를 돌아보자.

티모르가 가진 문제들은 우리 기준에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티모르가 매우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 이곳에서의 삶은 그만큼 카오스일까? 것도 아니다.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처럼 미화 아닌 미화를 시킬 생각은 없지만

내가 느낀 티모르는 참 예쁜 아이들과 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허나 역사는, 권력은, 돈은, 자본주의는, 세계는, 세상 곳곳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다.

세계가 developed해서 티모르 또한 developing해야만 하게 됐다.

티모르는 이제 모두가 발전을 원하고 있고 발전 중이며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티모르, 딜리, 테라산타에서 겨우 3달 남짓 지낸 우리가 이 곳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일은 어쩌면 참 오만한 일인 것 같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내가 이 곳에서 선불리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우리 기준에서 또 이들 기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라온아띠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재밌고 신나는 idea들을 많이 찾아내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나는 문제를 내 안에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있다.

나는 왜 후진국은 당연히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나는 왜 이 곳에서 "문제"를 찾아야만 하는가. 도와주러 온 봉사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보다 못 살고 덜 혜택받은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고 낯선 땅 티모르에서 5개월을 살아보게 된 행운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내가 자꾸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내 안의 압박감 때문일 지도 모른다. 라온아띠로 왔으니까, 이곳에서 5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나는 뭔가 지금처럼 그저 살고만 있는 것이 과연 괜찮은걸까 자꾸만 의심이 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가 나름 자부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내가 이곳에 살며 별다른 문제를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길 한켠에 쌓인 태우다 만 쓰레기들, 흙더미에서 뒹굴며 노는 아이들, 아직 나무장작을 태워 요리를 한대도, 냉장고 없이 끼니끼니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불 없는 욕실에서 감각으로만 샤워하더라도 이들도 나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질문으로 자꾸만 회귀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할까?

모두 다~ 개발되어야만 할까?

영아사망률이 높은 티모르는 미개한 곳인가?

그러는 우리는, 모두 안 죽고 무사건강히 잘 살고 있을까?

결국은 똑같은거 아닐까?



당연히 지금 나는 티모르에서 평생 불편없이 살긴 힘들 것이다. 왜냐면 난 이미 한국사람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이들은 "불편하고 후진된 곳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대상적인 시각은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불편해졌다.

나는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주목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친구, 내 가족들은 안 불쌍하기 때문이다. 그냥 똑같이 엄마고, 언니고, 동네청년이고, 동네꼬마다. 역사와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다. 사는게 다른데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다.

근데 좀 더 살다보면 익숙하다가도 도통 낯선 문화와 역사의 장벽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름 문제없이 이 곳에서 살고 있다는데 자기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다.

사실 개발이 나쁜 것만은 아닐거다. 개발이 물질적환경의 최저평균치를 높이는 것만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개발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놓고, 결코 '개발은 좋은 것이다'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밀어붙여선 안될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개발일까. 개발은 필요한건가, 불가피한건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보편적이고 당위성 있는 정당한 개발일까. 그것 또한 우리가 함부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인가.

11월, 나는 자꾸만 문제를 찾아야만 하는가에 집착했지만, 문득... 우리가 이곳에서 5개월씩 서너번을 그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의 조각들이 모이고 쌓여 뭔가 바람직한 정말 이상적인 "개발"을 이루어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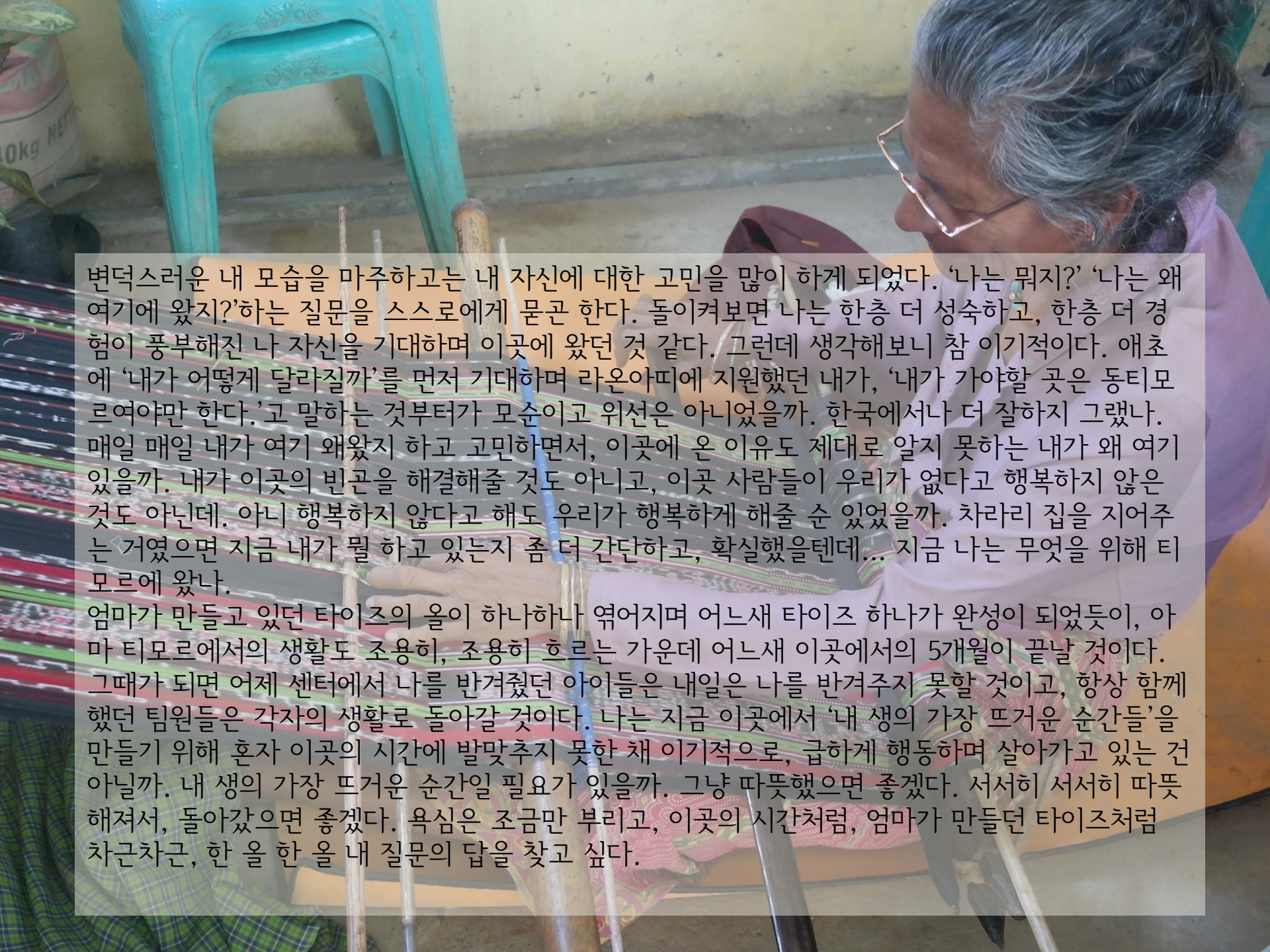


Berta's essay

지금 홈스테이 하고 있는 집엔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avo(할머니)가 계신다. 나는 엄마가 타이즈 만드는 걸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엄마가 타이즈 만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참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주변의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처음 엄마가 타이즈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얼른 카메라를 가져와서 그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었다. 엄마는 아마 어제, 엇그제, 이렇게 앉아서 타이즈를 만들고 계셨을 거고,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타이즈를 만들고 계실 거였다. '내일 찍어도 되고, 내일 모레 찍어도 되고, 엄마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계시겠구나.' 했다.

이곳 티모르에서의 생활이 그렇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다. 어제 봤던 아이들이, 오늘도 센터에서 날 반겨 주고, 또 어제 함께했던 팀원들과 오늘도 함께한다. 매일 매일이 내일의 준비로 바빴던 한국에서와는 정말 다른 생활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곳에선 모든 것이 천천히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덕스러워지는 내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제와 같은 아이들인데 왜 오늘은 어제만큼 예뻐해 주지 못하는 것이며, 예제는 사랑스럽던 팀원이 왜 오늘은 미운가. 티모르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센터 일도, 팀원들도 아닌 내 자신의 변덕스러움이었다.



변덕스러운 내 모습을 마주하고는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에 왔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한층 더 성숙하고, 한층 더 경험이 풍부해진 나 자신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이기적이다. 애초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먼저 기대하며 라온아피에 지원했던 내가, ‘내가 가야할 곳은 동티모르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모순이고 위선은 아니었을까. 한국에서나 더 잘하지 그랬나. 매일 매일 내가 여기 왜왔지 하고 고민하면서, 이곳에 온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이곳의 빈곤을 해결해줄 것도 아니고, 이곳 사람들이 우리가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니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순 있었을까. 차라리 집을 지어주는 거였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간단하고, 확실했으텐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티모르에 왔다.

엄마가 만들고 있던 타이즈의 올이 하나하나 엮어지며 어느새 타이즈 하나가 완성이 되었듯이, 아마 티모르에서의 생활도 조용히,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어느새 이곳에서의 5개월이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제 센터에서 나를 반겨줬던 아이들은 내일은 나를 반겨주지 못할 것이고, 항상 함께 했던 팀원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 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 혼자 이곳의 시간에 발맞추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급하게 행동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따뜻했으면 좋겠다. 서서히 서서히 따뜻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욕심은 조금만 부리고, 이곳의 시간처럼, 엄마가 만들던 타이즈처럼 차근차근, 한 올 한 올 내 질문의 답을 찾고 싶다.

Francisco's essay

| 11월, 시코의 생각들

관계 ;

우리 팀은 “싸웠다”고 할만한 갈등이 없었다. 나는 상처 받기 두려워 상처 주기 싫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에 다소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넷이 함께할 적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나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다. 덧붙여 누가 어떻게 보이든 진심은 통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외려 내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걸 간과했다.

육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이기에 나 역시 내가 힘든 부분을 그들에게 털어내고 싶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의식하고 있으나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꽤 어렵다. 가끔은 너무 빠른 속도를 원하는 건 아닌지. 예기치 못한 오해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으려 선택했던 지난 날, 다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걸까.

기다려달라는 말도, 내가 바뀔 거란 말도 못한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다만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 발걸음을 맞추는 시간이길. 천천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길.

그러면 나를 보는 네 마음도,
나 역시 네 기다림에 대한 고마움과
너에 대한 믿음도 커지지 않을까.

Maun Satu* ;



마운 사투를 만났다. 그는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대신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아, 안타깝게도 2년간 영어를 공부한 그에 비해 내 영어실력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여튼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 마을에서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는데 어렸을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홀로 자랐기에 스스로 숫자 1을 의미하는 사투로 지었단다. 미안한 마음과 그간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어 눈물이 맺힐 적, 그는 괜찮단다. 부모님은 없어도 친구들과 이웃이 있기에. 그들 역시 자신에게 가족 이란다.

그러다 마운 사투가 “나는 한국에 감사해. 왜냐하면 한국이 티모르를 많이 도와줬어” 라 말했다. 아,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말하려다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티모르에 더 감사해. 왜냐하면 한국은 혼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나는 티모르 사람들에게서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사람을 마음껏 좋아하고 사람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고.

한국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뒤로하고 자꾸만 욕심을 냈던 까닭은 무얼까.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많은 것을 갖지 않으면 혹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 혹은 거기서 오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내가 마운 사투를 비롯한 티모르 사람들에게 배우는 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서로를 꾸밈없이 믿을 수 있는 거다. 한국에 몇 없는 절친한 친구들이 동네 어느 곳이나 있는 느낌이랄까.

어느덧 2개월이 남았다. 남은 2개월만큼은 나의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티모르 사람들에게서 더 배우고 스스로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돌아가서 ‘티모르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며. ☺

*Satu는 Bahasa indonesia(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 숫자 1을 의미한다

Hau la kontenti. ita kontenti ka?

“Sim, Hau Kontenti. Tamba **hau hetan kolega foun**”

나는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새 친구를 얻었기 때문이란다.

미안했다.
그럼에도 마음 깊숙이 응어리진 것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 건 내가 너무 무뎠음을.
깨달아도 나의 변화는 어렵다고 체념한 까닭은 아닌 지.



한편으론 내 주변의 수 많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내가 나를, 또 그들에게 짐을 얹고 있었던 거다.

진짜 행복이란
나를, 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걸.

나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왔고 써오고 있는 걸까.

진정으로 내가 이 곳에서 해야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내 사랑을,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길.

* 11일 오전, 동네를 거닐다 UNICEF가 지은 공동주택까지 갔다. 그 곳에서 새로운 동갑친구 노나와 에르날도, 그의 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의 소중함을, 아니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들에게 정말 고맙다.

시코가

더 쓰고 싶은 이야기

외쿠시에서 온 청년

딜리 해변가에 앉아 멍하니 바닷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처럼 멍하니 바닷가를 쳐다보는 청년과 약 스물 다섯번 정도 눈빛을 주고 받다, 그에게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두 시간이 흘렀다...

그는 외쿠시*에서 온 청년으로 수도인 딜리에서 농업기술을 배워 외쿠시 청년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란다. 그가 바다를 쳐다보고 있던 이유인 즉슨 가족이 그리워서였다. 그렇지만 그는 슬프지 않단다. 내년, 외쿠시에 돌아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



슈퍼집 아들 비뚜

어렸을 적, 슈퍼집 아들과 친구하면 참 좋겠단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티모르에서 그 꿈을 이뤘다. 우리 집 앞, 슈퍼 아들 비뚜는 나이는 스물 다섯이지만 'Maun(형님)'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기로 했다. 밤공기 썩며 슈퍼 앞에 앉아 돌이 수다를 떨다가 가격도 모르는 나한테 슈퍼를 잠깐 봐달래놓고 가족 몰래 담배피고 오는 귀여운 친구다. 하루는 비뚜와 그의 동생들과 별별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홈스테이가 끝나고, 본래 숙소로 돌아오는 바람에 우리들의 수다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치만 조만간 우리들의 별이 빛나는 밤을 다시 올거야!



내게 망고를 건넨 그녀, 꼬마

미디어클라쎄 홍보겸 동네를 쏘다니다 꼬마와 친구들이 나를 불렀다. 미디어클라쎄에 관심이 있나 싶어 가봤더니, 대뜸 망고를 들어보이며 먹겠냐기에 냉큼 'Obrigadu (고맙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꼬마는 할아버지가 중국인이라 친구들이 나와 꼬마를 보며 닮았다고들 했다. 몇 개를 먹어도 계속 따다 주기에 혹여 파는 건데 그냥 주는 건가 싶어 물어보니, 자기집 망고나무는 팔려고 키우는 게 아니란다. 같이 먹고 나누고 싶다는 꼬마. 아띠들 뭇까지 챙겨주던 꼬마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 외쿠시는 동티모르 령이지만, 인도네시아 영토에 둘러싸여 동티모르 본토와는 떨어져 있다.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Labarik Klasse(어린이클라씨)에는 모자를 만들고 나뭇잎을 붙이거나
부러진 나뭇가지에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고,
나뭇잎을 만들어 나만의 나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작은 플라스틱통으로 화분을 만들어
센터 외벽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 몇 개를 만들어
시험삼아 걸어두었더니 이야... Zetu(최고)!

혼자 신이 나, 통을 몇 개 더 칠을 하고서야 문득든 생각.
동네 예술가들이 한 둘이 아니란 걸 깜빡했다.
청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걸.

지금 아띠들은 크리스마스 발표회 준비에
청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의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어
화분 만들기를 진행할 순 없다.

그치만 여유로워질 적,
END POVERTY 때 청년들과 돌 하나씩 쌓으며,
화분에 색칠하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작게나마 재현할 수 있길 바란다.

시코가

더 쓰고 싶은 이야기



Carlos's essay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 지는데에 있어서 우리는 몸이 부대끼다 라는 말을 쓴다. 몸이 부대끼다는 것 만큼 솔직한 말이 있을까,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살고, 친구들과 같이 시합을 뛰면서 진짜 몸을 부대끼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티모르에 와서까지 운이 좋게 좋게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팀으로 대회도 뛰고 있고 감사해야할 즐거워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 스포츠 만큼 사람을 빨리 친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듯 하다.

그래서 문득 아이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내 특성상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하든 몸을 부대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 약간 다른 느낌 일 수 있지만 관계에 대한 생각이 이래저래 많이 드는 시기 인 것 같다. 중간평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팀원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관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3달이 후다닥 지나갔다. 외부환경의 변화들로 적응하고 나아가는데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이제는 무언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는 것이 남은 시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3명과 긴 시간 함께하면서 정작 3명을 잘 알고는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글썄 원래 가장 가까이 항상 존재하는 것에는 특별함과 소중함을 잘 모르는 법. 오늘부터라도 우리 넷에게 더 관심가지고 더 즐겁게 더 소중하게 머리속에 새기는 일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즐겁게 해 줄 것 같다. 티모르에게, 친구들에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PS -현지인 피부가 다 된 나를 보면서 기분이 좋다.



12월에 만나용-

라운아띠 : www.raonatti.org
동티모르 YMCA : [Facebook.com/ymca.tl](https://www.facebook.com/ymca.tl)